출판계 움직임

◉ (株)女苑 社債6억 발행

(株)女苑 (대표 金在元)에서는 6월 1일 保證社債 6억원을 발행했다. 신한은행이 보증하고 대신증권이 주관한 이 사채는 삼성출판사에 이어 출판계에선 두번째로 발행된 것.

◉ 출판탄압백서 발간

한국출판운동협의회(사무국장 兪大奇)에서는 6월 10일 「출판탄압백서」를 발간했다.(B5 144면) 출판탄압日誌와 販禁도서목록, 관계자료 등이 실려 있다.

◉ 서적 流通문제등 논의

'87出協 제2차 常任理事會가 6월 24일 出協강당에서 열렸다. 案件은 출판경영자 세미나 계획·저작권법 대책·서적유통 公正去來감시 방안 등. 이 회의에서 저작권법 문제는 저작권對策委에 일괄 위임키로 했고 경제기획원이 19일 작성한 「공정거래방안」에 따른 出協의 감시기능에 대해 논의가 있었다.

◉ 종로서적, 「작가와의 대화」 모임

종로서적 주최 제67회 「作家와의 대화」가 6월 27일 同휴게실에서 열렸다. 分斷史를 조명하는 일련의 소설들과 관련, 金源一씨를 초청해 대화를 가졌다. 종로서적측은 7~8월을 쉬고 9월부터 행사를 열 계획.

◉ 일본출판 위탁관리업체 생겨

崔明鎬씨

저작권 위탁·관리를 맡는 「日本出版情報社」(대표 崔明鎬)(사진)가 4월 설립됐다. 일본 서적물의 版權관계 중개를 맡게 되는데 주소는 서울 강남구 서초동 1361-5 대한교과서(株)내. 전화 566-8168. 일본支社는 東京都 千代田區 神田小川町 3-14-2.

◉ 「언론활성화협의회」해산키로

신문협 방송협 編協 記協 대표로 구성된 언론활성화협의회는 6월 29일 신문협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협의회를 해산키로 결의했다. 협의회는 현행 언론기본법의 폐지등을 문공부에 건의키로 하고 4개 언론단체의 통일된 의견이 마련됨에 따라 이날 회의를 끝으로 해산키로 한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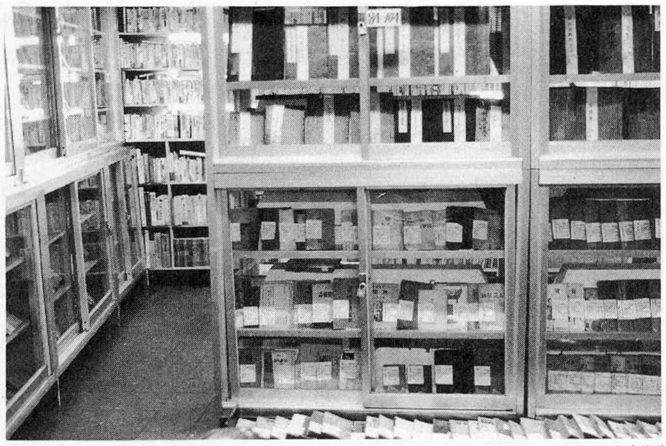
◉ 새 新聞課長 부임

문화공보부 매체국 신문과장에 秦炳茂 前해외공보관 제작과장이 7월 1일자로 부임했다.

◉ 저작권심의조정위 발족

문공부는 7월 1일 저작권심의조정위원 16명을 위촉함으로써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발족했다. 위원장에 張仁淑 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 사무국장은 許熺成씨가 맡는다(위원명단은 인터뷰記事참조)

◉ 古書 競賣展·講座 열려



한국출판판매 고서경매전

韓國出版販賣(株) 古書部는 제6회 古書競賣展示會와 제1회 古書大學講座, 한국古活字本 특별전시회를 잇달아 열었다. 7월 16~25일 동사에서 열린 競賣展에는 33명이 1785種의 도서를 출품했는데 25일에 경매가 있을 예정. 주요 도서로 금속활자본 孟子諺解(元宗字)·儷文集成(韓構字)·女四書諺解(戊申字)·文獻通考(甲辰字)·文選 第五十二卷(庚子字) 목활자본 金陵集(全史字)·鄉約集成(訓鍊都監字) 목판본 篆大學·乙巳庭試榜目·朱川鄉約 한글소설 漢陽歌(寫本)·됴웅젼(版本) 개화기간행물 東國名將傳·奇術學, 문학서로는 라도향의 「靑春」(27년 초판)등이 전시됐다. 제7회 競賣展은 9월 19~26일, 제8회는 11월 21~28일에 개최할 예정이다.

제1회 古書大學은 7월 16일 서울관광호텔에서 열려 「한국의 古活字」를 주제로 尹炳泰교수(충남대)의 강의와 전시회 관람이 있었다.

古活字本전시회는 7월 16일부터 8월 6일까지 동사 전시장에서 열리는데 李亮載씨가 출품한 93種 104件이 전시된다. 그중 희귀본으로는 東國通鑑 초판본(甲寅字 1461년), 楞伽經(世祖字와 乙亥字, 1461년), 東醫寶鑑초판본(乙亥字體 訓鍊都監字 1613년)·(사진)등.

한편 동사附設 韓國文學書誌資料館에서는 所藏자료와 전시대의 有料貸與제도를 마련해 기업이나 단체·교육기관등의 특별행사의 하나로 古書전시 代行업무를 접수하고 있다.

35번째 책을 펴낸 안춘근씨의 출판기념회

◉ 安春根씨 출판기념회

南涯 安春根 著「韓國出版文化史大要」(청림출판사刊) 출판기념회(사진)가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원 출판잡지전공同門會(회장 나중렬) 주관으로 7월 4일 出協강당에서 열렸다. 한국출판학회와 한국古書同友會가 후원. 안춘근씨는 乙酉文化社에 23년간 봉직하면서 출판학 연구에 정진, 69년에는 한국출판학회를 창립했으며 82년에는 古書동우회를 설립했다. 이 책은 35번째 저서.

◉ 종로서적 창립 80주년 맞아

종로서적(주)이 7월 9일로 창립80주년을 맞았다. 종로서적은 이달 한달동안 문학강좌등 이를 기념하는 각종 행사를 가질 계획. 1907년 종로 육의전 자리에 처음 서점을 열었던 종로서적은 예수교서회가 지금 위치에 목조기와집을 마련, 기독교서적의 출판·판매업무에 들어가면서 성장하기 시작했다. 예수교서회 사업이 활기를 띠면서 4층 건물을 신축, 그 1층에 「교문관」이라는 상호를 달고 독립했다. 그러나 교문관은 日帝탄압으로 1940년 문을 닫게 되었고 48년 정부수립과 함께 「종로서관」이라는 새 이름으로 출범했다. 70년대 서점계를 곤경에 빠뜨렸던 할인판매행위가 정가판매제 실시로 일단락되자 종로서적은 경영을 공개, 서점계로서는 최초로 주식회사로 형태를 갖추었다.

◉ 계몽사 독서감상문 모집

계몽사(대표 김춘식)에서는 8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전국의 국민학교학생과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독서감상문을 모집한다. 「프랑다스의 개」「야성의 엘자」「선녀와 나무꾼」「웃지 않는 공주」「달마」「손병희 전기」「뒤낭 전기」「우륵 전기」가운데 선택하여 원고지 7매 안팎으로 쓴다. 모두 3500명에게 시상할 예정.

◉ 英語教師硏修會 열려

시사영어사(대표 민영빈)는 8월 10~21일까지 고등학교 영어교사를 위한 英語會話 硏修會를 열 예정. 대상은 현직교사 50명으로 同社에서 미국인 교수의 지도하에 매일 3시간 회화教習을 갖는다.

◉ 英國서 국제도서관총회

제53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 총회가 8월 16일부터 21일까지 영국 브라이튼에서 열린다. 주제는 「변화하는 세계 속의 도서관과 정보 봉사」. 한국도서관협회(회장 이재철)는 관계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15명 가량이 떠날 예정.

◉ 일본 視察團떠나

전국서적상조합 연합회(회장 李秉仁)에서는 일본 서점조합연합회 초청으로 8월 중순 일본 도서유통계 시찰단이 떠날 예정. 조합간부중 희망자를 모집해 15명 정도로 구성.

◉ 한울 시리즈物 기획

한울社는 「북한정치경제입문 I」(김일평 저)을 곧 발간할 예정. 한울이 현재 발간 계획중인 도서는 假題「한국근대사학사론」(鄭昌烈 편) 「한국근대사 연구사론」(근대사연구회편.3천 매 분량을 20여명이 공동집필) 「비판적 교육사회학」(李圭煥 저) 「경제지리학」(형기주 저) 「한국자본주의 논쟁」(김대환 편) 등이다.

◉ 出協 독후감상문 모집

出協은 제25회 독후감상문을 모집한다. 대상도서는 자유선택이고 9월 5일까지 접수를 마감해 9월 22일 수상자를 발표한다.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로 국민학교 5장, 중학교 8장, 고등학교 10장, 대학·일반부가 12장안팎. 문화공보부·문교부가 후원하고 본상·특별상·지도교사상 등 90명에게 시상한다. 보낼곳 :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 105-2 대한출판문화협회.